

固有한 古代文字 사용설에 대하여

李 觀 洙

(弘益大 敎授, 國語學)

1.

訓民正音が 창제(1443)되기 이전에 고유한 古代文字를 사용했다는 설은 訓民正音의 起源을 캐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訓民正音의 起源을 우리 나라의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의 文字에서 찾아 보기도 하였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아니함을 보고, 그 연원을 우리 나라 안으로 돌린 것이 古代文字 사용설이다.

訓民正音が 창제되기 이전에 漢字의 차용이 아닌 우리의 고유한 古代文字를 사용했다는 설은 한별 權德奎(1890~1950)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그는 「朝鮮語文經緯」(1923 : 162—171)에서 ‘訓民正音が 그 이전의 朝鮮文字의 復興’이라고 하여 古代文字 11 종을 내세웠는데 다음과 같다.

① 三皇內文 ② 神誌秘辭 ③ 法首橋碑文 ④ 王文文字 ⑤ 手宮文字 ⑥ 南海島刻文 ⑦ 刻木字 ⑧ 句麗文字 ⑨ 百濟文 ⑩ 渤海文 ⑪ 高麗國書

한결 金允經(1894~1969)은 ‘한글의 起源이 우리의 古代文字에 있다’라고 하고 「朝鮮文字及語學史」(1938 : 46—57, 154—156), 「새로 지은 국어학사」(1963 : 21—28, 61—62)에서 9 종을 열거하였다.

① 三皇內文 ② 神誌秘詞文 ③ 王文文 ④ 刻木文 ⑤ 高句麗文字 ⑥ 百濟文字 ⑦ 渤海文字 ⑧ 高麗文字 ⑨ 鄉札

또 退耕 權相老(1879~1965)는 「朝鮮文學史」(1947 : 7—13)에서 ‘우리의

古代의 文字가 꼭 있었든지 없었든지 알 수는 없지만 ‘글월’만은 있었던 것이 事實’이라고 하여 8종을 제시하였다.

① 三皇內文 ② 秘詞文 ③ 法首橋碑文 ④ 王文의 文字 ⑤ 南海石刻文 ⑥ 刻木文 ⑦ 天符經文 ⑧ 玄妙訣文

그 후 李鐸(1898~1967)은 「國語學論攷」에서 燕岩集과 海東釋史의 기록을 들어 이른바 耽羅文字說을 주장하여 이것이 우리 古代文字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古代文字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그 견해가 일치된 점은 文字(言語材)가 전하지 않은 것으로 古文獻에 끼어 있는 片言들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宋鎬洙(「廣場」1984, 1월 호)가 ‘한글은 世宗 이전에도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것은 檀君三世(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임) 때 만들어진 ‘加臨多文’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한글과 거의 같은 字型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후설)

지금까지 알려진 古代文字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¹⁾

- ① 三皇內文…晉 洪葛, 「抱朴子」(內篇 卷之十八 地眞: 昔黃帝東到青丘, 過風山, 見紫府先生, 受三皇內文, 以劾召萬神) 韓致淵, 「海東釋史」(卷一, 「抱朴子」引用)
- ② 神誌秘詞文…徐居正, 「東文選」(卷一百二十 健元陵神道碑銘: …書雲觀舊藏秘記有九變震檀之圖, 建木得子, 朝鮮即震檀之說出自數千載之前, 由今乃驗) 權文海, 「大東韻府群玉」(卷之十三: 仙名, 神誌, 檀君時人, 自號仙人) 「龍飛御天歌」(卷三第十五章註: 局, 圖局也, 九變圖局, 神誌所撰圖識之名也, 言東國歷代定都, 凡九變其局, 并言本朝受命建都之事) 一然, 「三國遺事」(卷第三 寶藏奉老 普德移庵: […又按神誌秘詞序云, 蘇文大英弘序并注, 則蘇文乃職名, 有文證, 面傳云, 文人蘇英弘序, 未詳孰是]) 「世祖實錄」(卷七三年五月戊子: 諭八觀察使曰, 古朝鮮秘詞, 大辯說·朝代記·周南逸士記·誌公記, …等, 三人記錄, 修撰企所, 一百餘卷, 動天錄·磨風錄·通天錄·…等文書, 不宜藏於私廬, 如有藏者, 許令進上, 以自願齋冊回賜, 其廣諭公私及寺社)
- ③ 法首橋碑文…「平壤誌」(平壤法首橋, 有古碑, 非謬非梵非篆, 人莫能曉, …癸未(宣祖十六年)二月, 掘覓石碑之埋于法首橋者, 出而視之, 則折爲三段, 碑文非隸

1) 金敏洙(1980): 「新國語學史」 pp. 38—40에서 引用.

字，如梵書樣，或謂此是檀君時神誌所書云，歲久遺失)

- ④ 王文文字…「文化柳氏譜」(王文書文字，而如篆如符，文即受兢之父)
- ⑤ 手宮文字…日 中目覺，「小樽斗 古代文字」(北海道 小樽 手宮墓穴斗 彫刻文字)
- ⑥ 南海石刻文…慶尙南道 南海郡 二東面 良河里 地面岩石上斗 岩刻文
- ⑦ 刻木文…唐 姚思廉，「梁書」(卷五十四 諸夷傳：新羅者，其先本辰韓種也，…與高麗相類，無文字，刻木爲信)
- ⑧ 玄妙訣文…李宜白，「梧溪集」(余留朔寧水清龍腹寺，月夜有老人坐于松下，點燈開卷，余就視之，字若梵篆不可識，余問冊名，老人曰，此冊凡三卷，名曰玄妙訣東方流來道書，上古桓雄聖仙創造十餘章，其後解慕漱仙刪述，作四十章，…) 寒松亭
- ⑨ 鄉札…赫連挺，「均如傳」(我邦之才子名公解吟唐什，彼土之鴻儒碩德，莫解鄉謠，矧復唐文如帝網交羅，我邦易讀，鄉札似梵書連布，彼土難諳)
- ⑩ 天符經文…曙宇 全秉熙，「精神哲學」(第一卷 東韓神聖檀君天符經註解緒言：東賢仙眞崔致遠曰，檀君天符經八十一字神志篆，見於古碑，解其字，敬刻白山)
- ⑪ 高句麗文字…金富軾，「三國史記」(卷第十一：憲康王十二年春，北鎮奏，狄國人入鎮，以片木掛樹而歸，遂取以獻，其木書十五字云，寶賂國與黑水國人，共向新羅國和通)
- ⑫ 百濟文字…金富軾，「三國史記」(卷第二十四：近肖古王三十年，…古記云，百濟開國已來，未有以文字記事，至是得博士高興，始有書記，然高興未嘗顯於他書，不知其何許人也)
- ⑬ 渤海文字…昔 劉昫，「舊唐書」(卷一百九十九下 列傳第四百十九 北狄渤海靺鞨：…風俗與高麗及契丹，頗有文字及書記)「高麗史」(世家 卷第一：太祖八年…，唐武后時，高句麗人大祚榮走保遼東，睿宗封爲渤海郡王，因自稱渤海國，并有抑餘肅慎等十餘國，有文字禮樂官府制)
- ⑭ 高麗文字…李德懋，「清脾錄」(卷三 寒松亭曲：高麗張延祐興德縣人，顯宗朝踐歷華要，官至戶部尚書，又名晉山，其時樂府有寒松亭曲，嘗有人書此曲於瑟底，瑟漂流至江南，江南人未解其詞，光宗時晉山奉使江南〔案似是吳越錢氏時〕，江南人問其曲意，晉山作詩釋之曰，月白寒松夜，波安鏡浦秋，哀鳴來又去，有信一沙鷗，案此說則高麗時別有國書，以釋方言，如新羅吏讀，本朝訓音而未可考也) 日行智，「訓釋諺文解」(高麗模範元祐通寶背文ㄣ字，如今文ㄣ字，前代遺文，可以實見)

2.

우리 고유의 古代文字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文蹟들의 기술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言語의 歴史的 研究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시되는 자료는 남아 있는 言語材이며, 그리고 그것은 言語學的 研究方法에 의해서 論證이 되어야 한다. 후세의 기록인 文蹟들은 확실한 言語材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결정적 典據로는 삼을 수 없는 것이다. 言語의 기원은 너무 요원해서 알 수 없으나 文字의 기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 드는 문제로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인류 역사를 전후하여 제 나뉠대로 종족의 특성에 맞게 文字를 만들었다. 人類가 文字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國語가 가지는 時間的 空間的 制約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一朝一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 人智의 발달과 더불어 서서히 生成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文字發達史는 言語發達의 一般的인 발달 과정, 즉 보편 타당성의 一般的인 원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文字의 일반적인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歴史時代에 들어 매듭을 매어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는 남아메리카를 비롯 한국·중국·일본·티벳 및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中國古代의 기록에 의하면 ‘上古結繩而治 後世聖人 易之以書契’(蔣伯斧, 文字學纂要: 19)라 하였고, 朱熹는 ‘結繩 今溪洞諸蠻有此俗’이라 하였으며, 嚴如煜은 ‘苗民不知文字……性善記懼有忘則 結於繩’이라 하여 ‘結繩’이란 것이 古代 中國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여러 오랑캐들이 이 풍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梁書諸夷傳 新羅條에 ‘無文字 刻木爲信’이라 하였으니 서로의 기억을 돕는 수단으로 나무에 눈을 새겨 뜻을 교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세 崔萬里的 訓民正音 反對上訴文 가운데서도 ‘若我國元不

知文字 如結繩之世 姑借諺以資一時之用猶可 而執正議者…’라 하여 文字가 없었을 때 옛 사람들의 생각의 보존이나 전달 방법의 일단을 말해 주고 있다.

서기 10세기경 잉카(Inca)족에 의해 건설된 잉카 제국에 있어서도 역시 매듭 제도가 있어 이를 qipus 라고 했는데 페루말로 매듭이란 뜻이다.

이와 같이 매듭처럼 기억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는 지금도 미개인 사이에 쓰이고 있는 아메리카 토인의 자개띠(wampum)를 들 수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토인의 사자의 막대(messenger stick)를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은 文字는 아니나 文字의 선도적 구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쓰던 시대를 ‘기억돕기 시대’(memory stage)라 한다. 지구상에 남아 있는 이러한 흔적들은 人類의 思考의 발달 과정이나 인류 문화의 창조 과정을 추정하게 하며, 이는 또 文字生成過程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古代文字라는 것도 대부분 傳說的인 이야기로 확증이 없는 것이며, 文字의 단계에까지 발전하지 못한 繪畫文字(pictography)이거나 漢字 혹은 漢字借字體系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우리 나라의 先史時代의 岩刻은 수십 종이 넘고 있으며, 南海島의 石刻文에 대해서도 종래와 다른 線刻畫라는 견해가 발표되었고 학계에서도 대부분 古代의 岩刻畫로 보고 있다. 이러한 岩刻畫도 대개 先史時代에 풍요를 빌던 종교 의식의 유적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것은 우리 古代의 祭天儀式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民族傳來의 線刻畫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金敏洙 : 1980 : 38—41)

기억돕기 시대의 이러한 과정을 거쳐 文字가 生成되는데 繪畫와 象形的 과정을 거쳐 文字生活에 편리한 表意文字와 表音文字로 發展한 것이다. 오늘날 表音文字인 英語도 이집트의 繪畫文字에서 발달한 것이다.

中國의 漢字도 繪畫文字와 연줄하여 발달한 것인데 鐵雲藏龜(劉鄂, 1903)에 의해서 알려진 中國最古의 殷代의 甲骨文字도 약 3000~3500 년 전의 것이다.

古代에 漢字借字體系가 아닌 고유한 古代文字를 사용했다는 설은 그 字形이나 音素體系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言語材도 없기 때문에 推斷하기는 어렵지만 訓民正音과 비슷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일 것이다.

文字生成 초기에 일반적인 형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音素文字가 탄생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발달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일인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言語材가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고유한 古代文字를 썼다고 아무리 강조하여도 설득력이 없는 일인 것이다. 전해 내려오는 傳說的인 이야기에 時代에 따른 한갓 添論에 불과한 것이다.

3.

古代人에 대한 文字生活에 대하여, 거슬러 살펴볼 때 그들이 최초로 접한 文字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漢字일 가능성이 높다.

漢字의 傳來時期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文蹟에 따르면 서기 전 3세기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때는 中國의 戰國時代(BC 403~256)로 華北地方의 대혼란으로 部族東進과 함께 遼寧靑銅文化가 수입되었으며 燕나라 流民에 의한 衛滿朝鮮이 수립되었다. 그 후 漢武帝에 의해 衛滿朝鮮이 멸망하고 漢四郡(BC 108~313 AD)이 성립되는 한편, 三國이 部族國家로 성장하던 시기였다. 漢文傳來는 三國에 따라 다르나 扶餘에서 잘린 高句麗는 國初부터 漢字가 쓰였음을 다음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扶餘……其印文言濊王之印 國有故城 名濊城 蓋本濊貊之地面而扶餘王其中 自謂亡人 卽有似也’(三國志 魏志東夷傳)

그리고, 三國史記에 佛教傳來와 太學設立이 小獸林王 二年(372)인 것으로 되어 있다.

1세기 경의 平南 龍岡의 粘蟬碑文, 357년 黃海 安岳의 高句麗 冬壽墓

墨書銘 등의 金石文은 漢字의 傳來時期나 使用段階 등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 후 본격적으로 漢字借字時代로 들어가게 되었다.

漢字借字의 첫 단계는 人名·地名·官名 등의 표기였는데, 처음은 借音의 방식으로 中國에서의 外來語表記의 方法과 같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漢字의 借訓은 일차적인 表記方式은 아닐 것이며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鄉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音訓借에 의한 漢字借字表記體系가 확립되었을 것이다.

借字體系에 대하여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借字體系에 의한 몇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阿且城，味仇婁，史勿縣，今勿奴縣
鄭牟王，居七夫，居柒夫，內夫
及尺干，一尺干，奈末，道使

이러한 借字體系의 발달은 鄉札·吏讀·口訣이라는 체계를 갖게 되었는데 漢字를 빌어 쓴 借字表記體系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나 그 원리와 용도에서 각기 달리 붙여진 名稱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위에서 보인 예와 같이 처음에는 人名·地名·官名 등 간단한 固有名詞로부터 시작하여 鍾銘·塔碑·帳籍 등에 미치고 마침내는 新羅 鄉歌의 文學的 創作에까지 미치는 발전을 하였다.

國字가 없을 때 外來文字가 傳來하면 그것을 借用하여 母國語를 표기해 보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漢字의 傳來 후 위의 예와 같은 借字方式이 母語表記의 첫 시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訓民正音 창제 이전에 쓰여온 文字中에서 남아 있는 유일한 言語材이기 때문이다.

東洋漢文化圈은 일찍부터 先進한 漢文化의 영향을 받아 漢字를 借用하여 文字生活을 했는데, 우리와 같이 고유한 文字를 갖지 못한 日本이 漢字傳來 후 借用時代를 거쳐 假名를 만들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와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鄉歌를 표기한 鄉札과 같은 借字法이 萬葉假名으로 전하며, 假名の 형성이 吏讀의 略字와 같

은 方法으로 되었으며, 日本의 漢文의 讀法이 口訣의 釋讀方法과 같다. 이는 일찌기 우리 나라의 舊譯仁王經(14C 초)에서 그 讀法을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借字表記體系의 발전에 佛家側이 많은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日本의 僧侶들도 佛典講釋 때 讀法과 註解를 위해 經典行間에 漢字略字로 표기하는 등 借字體系를 발전시켜 假名를 生成하는데 공헌이 컸던 것이다. 그리고, 釋日本記에 日本紀私記의 설을 인용한 ‘其字體頗似梵字 未詳字義所准據’와 新井白石의 同文通考에서 ‘新字는 梵書를 닮았는데 漢字의 體는 아니다.’라고 한 것은 高麗 翰林學士 崔行歸의 鄉札에 대한 그의 論說과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즉 ‘…鄉札似梵書連布 彼土難諳’이라 하여 鄉札이 漢字로 되어 있지만 梵書가 連布한 것과 같아 中國人은 알기 어렵다고 했으니 漢字借字體系의 유사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에서도 이와 같은 借字時代를 거쳤음에도 固有文字說이나 허무맹랑한 神代文字說 같은 것이 있기는 하다. 지금부터 약 300년 전부터 주로 神道家, 일부 國學者에 의해 일기 시작한 神代文字說은 그들의 言語觀・歷史觀에서부터 출발점이 달랐고, 그 사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 金澤庄三郎과 小倉進平 같은 現代言語學者の 考證으로 神代文字存在說은 하나의 虛構였음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古代文字說도 漢字에 의한 借字體系였으리라고 추단한 점도 우리의 古代文字 유무의 논란에 참고가 될 것이다.

本來 母國語表記를 위해 外來文字를 借用한다는 것은 音素體系, 統辭體系, 文法體系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訓民正音 創制 후 訓民正音과 漢字를 雜用하기 위해 方便을 마련했는데, 訓民正音解制 合字解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文興諺雜用則有因字音而補以中終聲者 如孔子 魯人사람之類’

만약 고유 문자가 있었더라면 訓民正音 창제 이전에도 고유 문자와 借字體系, 고유 문자와 漢字와의 雜用方法이 반드시 있었을 법한데 그러한 흔적이 하나도 없음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고유 문자나 借字體系 모두가 文字生活을 하기에 불완전했을 테니까 雜用은 너무나 필연적인 방법이이었을는

지 모를 일이다.

古代文字의 출처 중 三國史記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말하는 ‘高興博士를 얻어 비로소 書記를 갖게 되었다—百濟文字說’이나 高句麗文字說, 그리고 舊唐書나 高麗史에 있는 ‘文字와 記錄이 있다—渤海文字說’과 旅庵 申景澐(1712~1780)이 그의 訓民正音韻解序에서 ‘東方舊有俗用文字 而其數不備 其形無法 不足以形一方之形 而備一方之用也 正統丙寅 我世宗大王製 訓民正音 其例反切之例’라고 한 ‘俗用文字’를 전래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으나 當代의 文化的, 歷史的 배경으로 보아 漢字이거나 漢字借字體系의 一環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手宮文字는 外國文字로 해석될 여지가 많으며, 清脾錄의 高麗文字說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漢字借字體系를 말하는 것이다(참고: 弘大論叢 16집, 한글과 日本神代文字 참조)

三皇內文, 法首橋碑文, 王文文字, 南海石刻文, 刻木文, 玄妙訣文 등은 거의 믿을 수 없는 기록이며, 만약 이 기록을 믿는다면 이것은 岩刻畫나 濠洲土族의 使者棒(messenger stick)과 비슷한 文字 이전의 기호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檀君時 神誌가 秘詞를 만들었다고 하는 神誌秘詞文이나 天符經文은 같은 맥락의 것으로 檀君 때 文字(한글)가 있었다는 주장인데 최근에 한글의 원형까지 제시한 바 있다.

4.

지금까지 내세운 고대 문자설은 說로서 그칠 뿐 일체의 言語材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최근 한글은 檀君三世 때 창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과 거의 같은 한글 字形을 제시함으로써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論旨는 과거 日本에서 거론된 이른바 日本의 神代文字와의 관련에서 한글의 元型을 찾으려 한 것이며, 世宗大王의 訓民正音 창제설을 부인하고 檀君三世, 즉 4200년 전에 한글이 만들어졌음을 주장하고 과거 日本에서 전하고 있는 神代文字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글과 일치하고 있는 점을 들어

日本 神道家 및 國學者들에 의하여 주장된 論據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日本 神道家 및 國學者에 의하여 주장된 神代文字야말로 日本 古來의 神代文字이고 우리 한글은 이를 모방한 것이라는 ‘日本神代文字와 한글은 親子關係’와 같다 라는 황당무계한 설에 주목하고, 그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데 대한 反論形式으로 論旨을 전개하고 있다.²⁾

이러한 典據는 桓檀古記로 그 속에 合編되어 있는 檀君世紀의 ‘第三世 檀君 嘉勒……命三郎乙普勒譯正音三十八字 是爲加臨土其文曰……’과 太白逸史의 ‘檀君嘉勒二年三郎乙普勒譯正音三十八字 是爲加臨多其文曰……’ (두 책 인용문 말미의 점선친 곳에 오늘날의 한글과 거의 같은 字型 三十八字를 보이고 있음)의 기사와 東國歷代·檀奇古史 등에 실려 있는 加臨多文 창제설을 그대로 인정하여, 기사에 의거 그것은 高麗初 光宗 때까지 散在해 있었다고 한다(太白逸史: 94). 지면 관계로 詳論을 펼 수 없고(拙稿: 弘大論叢 16집 참조) 그 論據의 허구성을 개략하기로 한다.

(1) 典據나 論證이 言語科學의이 못 되고 傳說的이고 神話的인 면은 앞서의 古代文字說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中國最古의 甲骨文文字도 3000~3500년 전의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보다 약 1000년 전, 지금부터 4200년 전에 音素文字인 지금과 거의 同形인 한글이 창제되었다는 것은 言語發達史上 수궁하기 어렵다.

(2) 남아 있는 言語材가 하나도 없다.

(3) 典據로 내세운 桓檀古記는 1911년 大倮教徒인 雲樵 桂延壽가 다음 5개서를 合編하여 刊行한 것이다.

三聖紀全上篇(安含老撰)

三聖紀全下篇(元董仲撰)

檀君世紀(紅杏村叟編)

2) 宋鎬洙씨가 「廣場」(1984. 1월호·3월 호)에 ‘한글은 世宗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논설을 게재했다. 筆者는 同誌 2월 호에 ‘한글은 世宗 때 창제되었다’라는 反論을 펴고, 3월 30일에는 한글 학회 연구 발표회에서 같은 論題로 反論을 폈다. 지금까지의 총정리를 弘大論叢(1984, 16輯)에 ‘한글과 日本神代文字’라는 論題로 발표했다.

北夫餘記上下(休崖居士編)

太白逸史(一十堂主人撰)

凡例에서 5개서의 編纂者, 編纂經緯, 所藏家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1911년에 太伯教徒인 桂延壽가 妙香山 檀君庵에서 썼음을 말하고 있다. 이 책들은 檀君을 중심으로 한 古朝鮮에 관한 기사인데 歷史에 대한 객관적 기술 태도라기보다 太伯教徒로서 檀君을 추앙하는 태도로 기술하고 있다. 이 외에 檀奇古史(729), 神事紀(失名著) 등에서 한글에 대하여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檀君朝鮮 47世 檀帝까지의 年條別 記錄史가 一律的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거의 같은 내용의 책들인 것이다. 檀君朝鮮에 대한 歷史的 評價는 두고라도 이러한 野史들의 기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한글의 字型을 보이고 있는 太白逸史는 李陌(1455~1528)의 편찬으로 檀君世紀를 편찬한 李岳(1297~1364)의 玄孫이다. 이 책에는 大倭敎의 經典인 天符經과 三一神話가 들어 있으며 桓雄天皇이 神誌赫德에게 명하여 書契를 만들게 했다는지, 神誌의 篆文, 南海島의 石刻文에 대한 이야기 등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해오는 傳說的인 이야기들을 채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편자가 訓民正音 창제 후의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

檀君世紀는 高麗末期의 學者 李岳(1297~1364)이 지었는데 호는 杏村이다. 檀君世紀는 李岳이 편찬한 것과 雲樵 桂延壽가 1911년 5개서를 합편한 桓檀古記 속에 있는 檀君世紀 외에 수종의 별본이 세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것이 李岳이 쓴 檀君世紀인지 알 수 없는 일이며, 그것도 李岳이 저술한 것이 아니라 奇古之書를 접하여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11년 桂延壽가 합편한 檀君世紀가 原本이라고 할 아무런 보장도 없다. 앞에 든 여러 책에서 古朝鮮에 文字가 있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李岳도 檀君 때의 文字創制說을 믿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것은 加臨多文(筆者의 생각으로는 漢字借字體系를 말한 것으로 봄)이라고 표현했지만 李岳이 쓴 檀君世紀에는 한글의 字型이 없었는데 후세의 大倭敎徒들이 先驗의 思考에 의해 한글의 字型을 加筆添加한 것으로 보인다.

高麗末의 주권 회복 운동과 관련시켜 볼 때 檀君의 추앙과 더불어 古代文字說을 檀君과 결부시킨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그리고 편찬 연대도 李頤이 죽기 1년 전인 66歲 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믿기 어려운 일이다.

國字에 대한 先人들의 기록은 口傳되어 오던 온갖 傳說的인 이야기들로부터 筆者의 推論, 후세인의 添論, 歷史的 狀況에 따른 각색과 윤색 등으로 사실과 동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古代文字 사용설은 古文獻의 여기저기에 끼어있는 片言들로서 그 그림자조차도 접할 수 없는 것들로 科學的 論證이 서지 않는 한, 한 推論에 그칠 뿐이다. 최근 제시된 桓檀古記 속의 자료들은 信憑性이 빈약한 野史들에 실려 있는 것으로 古代에 고유 문자가 없었다는 지금까지의 說을 뒤엎을 정도가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言語材와 諸記錄 그리고 文字發達上의 일반적 과정으로 보아 訓民正音創制 이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고유 문자가 없었고, 鄉札・吏讀・口訣의 漢字借字體系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權惠奎(1923): 「朝鮮語文經緯」
 金敏洙(1980): 「新國語學史」
 金允經(1933): 「朝鮮文字及語學史」
 _____(1963): 「새로 지은 국어학사」
 李觀洙(1984): 「한글은 世宗 때 창제되었다」 「廣場」 2월 호
 _____(1984): 「한글과 日本神代文字」 弘大論叢, 16輯
 최 현배(1982): 「한글갈」
 허 웅(1981): 「언어학」
 桂延壽(1911): 「桓檀古記」